신우요관이행부폐색에서 술 전 역행성 신우조영술의 요관형태에 따른 수술적 치료의 경과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, 진단방사선과학교실[1], 소아과학교실[2]

김재욱, 김명준[1], 이재승[2], 한상원, 최승강

목 적: 신우요관이행부 폐색에서 술 전 역행성 신우조영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으며 그 시행의 기준 또한 정립된 것이 없다. 이에 저자들은 술 전 역행성 신우조영술의 요관형태에 따른 술 후의 경과를 비교함으로써 술 전 역행성 신우조영술의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: 1996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본원에서 신우요관이행부 폐색으로 진단받고 신우요관 성형술을 시행받은 77명의 환아 중 술 전 복부초음파와 역행성 신우조영술 및 술 후 6, 12개월의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38명 (40개 신장)의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 환아들은 술 전 역행성 신우조영술에서 나타난 요관의 형태에 따라 A, B, C 군 (A 군: 단순 신우요관이행부폐색, B 군: 다발성 협착, C 군: 저형성 요관)으로 분류하였고 술 전 복부초음파와 술 후 6, 12개월에 시행한 복부초음파에서 나타난 수신증의 호전정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결 과: 환아들은 A, B, C 군 각각 15 (16개 신장, 한명에서 양측 신우요관이행부폐색), 11, 12 (13개의 신장, 한명에서 양측 신우요관이행부폐색) 명이 포함되었으며 수술 당시의 평균연령은 10.66개월이었고 각 군에서의 평균연령은 A 군: 13.94, B 군: 2.62, C 군: 13.44개월이었다. 각 군에서의 술 전 수신증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($p>0.05$) 술 후 6, 12개월의 수신증의 정도는 (mean±S.D.) A 군에서 2.00±0.63, 1.63±0.50, B 군에서 1.91±0.70, 1.45±0.52, C 군에서 2.92±0.76, 2.62±0.77이었다. C 군에서의 수신증의 호전 정도는 A, B 군과 비교시 술 후 6개월 및 12개월 모두에서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($p<0.05$)

결 론: 현재까지 저자들의 결과로는 저형성 요관을 보이는 신우요관이행부폐색에서는 그 수신증의 호전정도가 다른 경우보다 느린 경향을 보이며 만약, 이러한 결과가 장기추적관찰에서도 역시 나타난다면 술 전 역행성 신우조영술은 신우요관이행부폐색에서 술 후 경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한 인자가 될 것이다.